



공동제작자 설앤컴퍼니 설도운 대표

“캣츠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품’이죠”

뮤지컬 제작자 설앤컴퍼니의 설도운 대표(48)는 한국 뮤지컬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설 대표가 2002년 제작한 ‘오페라의 유령’은 유료 관객 24만명, 매출 200억원으로 한국 공연 역사를 바꿔 나갔고 이후 ‘캣츠’ ‘미녀와 야수’ 등 흥행작들이 이어졌다.



오는 9월 6일부터 광주 문예회관에서 공연되는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는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작품이다.

후주의 RUG 등과 ‘캣츠’ 오리지널 월드 투어 공연을 공동제작, 흥행 흥련을 날리고 있는 설 대표를 ‘캣츠’가 공연중인 서울 국립극장에서 만났다. 설 대표는 오는 2010년 한국에서 공연 예정인 ‘오페라의 유령’ 관련 작업 진행 차 호주를 방문하고 하루 전날 귀국한 참이었다.

이번 공연서 한국말 ‘메모리’ 화제 젊은 공연팀 다이내믹한 춤 볼만



이번 ‘캣츠’ 공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면은 바로 한국말로 부르는 ‘메모리’다. 세계 어느 공연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이벤트는 설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2년 전 프род류싱을 진행한 ‘캣츠’는 분명 성공할 거라 확신했죠. 작품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요. ‘캣츠’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레 미제라블’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힙니다. ‘명품’ 이미지가 강하죠. 또 20년 이상 통탄한 것은 그만큼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서울=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흰 면장갑이 인형으로 바뀌었어요”

애프트화수도추진단, 31일까지 운영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인기

“어, 공장에서 사용되는 나무가 예쁜 액자로 변했네요.”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똑똑똑 문화야 놀자’가 한창인 16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1층에는 초등학생 또래 아이들이 모여 앉아 흰 가를 ‘똑똑’거리고 있었다.

림을 그렸더니, 책상 앞을 장식할 수 있는 귀여운 액자가 됐다. 또 일할 때 사용하는 흰색 면장갑은 폐기된 플래카드를 찢어 속을 채우고, 눈·코·입을 그려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재활용한 인형과 액자를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흰 면장갑이 인형으로 바뀌었어요”라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재활용 예술+놀이 체험’(화~금요일)과 ‘애니메이션 체험’(토·일요일)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중 프로그램에서는 스티로폼과 빈 깃통을 이용해 배를 만들고 치약과 칫솔을 동력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들을 모아 색칠을 한 뒤 미니 칠판 또는 책갈피로 변신시킨다. ‘애니메이션 체험’은 연속되는 띠 그림을 빨리 돌려보는 식으로 만화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단의 김정민(여·25)씨는 “매일 평균 40~50명의 아이들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외 홍보관에서 진행되는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중심도시예 바자’, ‘동화의 나라로 gogo’ 등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화~일요일까지 오후 2~6시 사이에 아무 때나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062-230-0188,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렌즈를 벗어난 또다른 세상

옥과미술관 내달 5일까지 ‘사진은 반응이다’展

필름에 맺힌 피사체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사진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전라남도 옥과미술관이 다음달 5일까지 ‘사진은 반응이다’전을 연다. 참여작가들은 단순히 현실을 담아내는 영글보다는 카메라 렌즈를 벗어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위치는 주검, 여성들의 속옷, 피사체가 없는 텅 빈 화면 등 미술관에서 보기 힘든 작품들의 나열이다. 김화용씨는 ‘달랠라~결혼질’ 연작에서 포토샵 기법을 동원해 코믹한 작업을 선보이고, 윤여용씨는 사진의 사각형 앵글을 벗어난 색다른 구도를 보여준다. 참여작가는 권순관, 김일권, 김효중, 노순택, 서진은, 안희정, 여락, 윤재경, 황지영씨 등 11명. 문의 061-363-727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울지역 미술관 투어 대동문화재단

대동문화재단(회장 조상열)이 19일 ‘서울지역 미술관 투어’에 나선다. 이번 투어에는 현대미술 상설 전시와 국제현대사진전이 열린다는 점

성 리오박물관과 ‘모네’전이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전이 열리는 예술의전당 등이 포함된다. 참가비는 성인 6만5천원, 대동문화회원과 학생은 6만원이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461-150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름추리소설학교 개최

24~26일 부산 추리문학관

한국추리작가협회(회장 김성중)는 24~26일 부산 해운대 추리문학관에서 제20회 여름추리소설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추리작가 이수광, 백휴, 강형원, 육홍대, 무협작가 겸공인, 소설가 이상우씨를 비롯해 경찰감시관 출신의 이상재씨, 최상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 소장 등이 참여, 추리문학을 주제로 한 글든백, 백일장, 토론회, 모둠찾기, 모의연극 등이 마련된다. 특히 이상재씨의 ‘살인사건 현장감식 및 프로파일링’, 최상규씨의 ‘과학수사’, 이수광씨의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과 역사추리소설’, 이상우씨의 ‘추리소설의 과거와 현재’ 등 좀처럼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추리강연회도 함께 열린다. 참가비는 1인당 9만원. 참가를 원하는 독자는 한국추리작가협회(02-3142-3221)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서동요는 성행위 묘사한 향가”

정우영 동국대 교수 학술대회 논문서 밝혀

자가 일부 마모되는 바람에 확실한 자형(字形)을 알 수 없으나 최근 공개된 조선 초기 삼국유사 판본에서는 글자가 완연하며, 나아가 같은 텍스트에 사용된 같은 글자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나의 다른 글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왕 딸인 선화공주(善化公主)가 밤마다 남몰래 ‘안고 가는’ 물건으로 가사(歌)에 보이는 ‘卵’(원)이라는 글자를 ‘알’을 의미하는 ‘卵’(란)이라는 글자의 이체자(異體字)로 해석하면서, 이 경우 알은 “불알”이라고 주장했다. 이체자란 모양은 다르지만 발음과 뜻이 같은 글자를 말한다.

이 정 교수는 서동요가 이른 자와 일반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조선 중종 7년(1512) 경주부(慶州府) 발간 이른바 정덕본(正德本) 삼국유사에는 卵에 해당하는 이체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향가 14 수 중 하나인 서동요(巖童謠)는 여성 상유 성행위를 묘사한 가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어학 전공인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정우영(53) 교수는 16~17일 경북 안동 소수서원에서 열린 2007년 여름 구결학회 제35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 ‘서동요 해석의 두어 문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신라 진평

영화인사 Happy Time, 영화인사, 영화인사

메가박스 Megabox, 구.리던약국사거리, 4관 만남의 광장, 5관 화려한 휴가, 6관 스타더스트, 7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8관 디워/판타스틱4, 9관 화려한 휴가/만남의 광장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총장로 5가, 1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2관 미스터빈의 출리데이, 3관 화려한휴가, 4관 서핑업/판타스틱4, 5관 디워, 6관 기담/리턴, 7관 만남의 광장

컬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상무점, 1관 스타더스트, 2관 미스터빈의 출리데이/리턴, 3관 디워, 4관 디워, 5관 서핑업/판타스틱4/실버서피의 위험, 6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7관 만남의 광장, 8관 조디악, 9관 만남의 광장/화려한휴가, 10관 화려한 휴가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총장로 1가, 1관 리턴, 2관 화려한 휴가/스타더스트, 3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4관 만남의 광장, 5관 디워, 6관 디워, 7관 서핑업/판타스틱4, 8관 조디악, 9관 화려한 휴가

제일시네마 Jeil Cinema, 총장로 3가, 1관 화려한 휴가, 2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3관 리턴, 4관 디워, 5관 만남의 광장, 6관 휴려한휴가/판타스틱4